

# ‘하다’ 동사 형성의 몇 문제\*

김 창 섭 \*\*

## 1. 머리말

본고의 ‘하다’ 동사란 ‘X하다’ 형의 파생어와 합성어를 가리킨다.<sup>1)</sup> ‘하다’는 명사나 부사, 어근을<sup>2)</sup> 선행형식(어기, ‘X’)으로 하여 ‘공부하다, 싱글벙글하다, 변하다’와 같은 동사나 ‘건강하다, 깨끗하다, 편하다’와 같은 형용사를 형성한다. ‘하다’는 또 부사나 동사의 활용형과 결합한 ‘같이하다, 함께하다, 좋아하다’와 같은 동사도 형성한다. ‘하다’나 ‘X하다’에 관한 연구는 앞의 부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최근의 생성문법적 연구들은 그들을 하나의 파생어로 보는 전통적 견해

---

\* 이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1995학년도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1) 이 글에서 ‘동사’는 때로는 형용사(상태동사)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때로는 동작동사만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쓰이기도 할 것이다. 본고 제목의 ‘동사’는 넓은 의미의 ‘동사’이다. 또 ‘복합어’를 유개념으로, ‘파생어’와 ‘합성어’를 종개념으로 사용한다.
- 2) 본고에서의 ‘어근’이란 굴절접사와 직접 결합할 수 없으며 자립형식도 아닌 단어의 중심부를 가리킨다(이익섭 1968, 1975). ‘복합’은 ‘파생’과 ‘합성’을 아우른 개념이다.

와 달리 그들의 'X'와 '하다'가 통사부에서 별개의 단어로 출발한다는 생각으로 기우고 있는 듯하다.<sup>3)</sup>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이 주제의 연구에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특정한 종류의 종속접속절에서 서술어가 '하...' 없이 어기인 'X'만으로 성립하는 현상을 과제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이 현상을 접미사와 그 후속 어미의 생략으로 이해하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하다' 동사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에 대한 몇 문제—'X하다'의 단어성, 'X'의 성격과 '하다'의 성격, 새로운 어기의 성립과 'X'의 분립—에 대한 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종속접속절에서의 '-하...' 생략

### 2.1. '-하...' 생략과 동사 'X하다'의 확인

2.1.1. 어떤 부류의 'X+하...'는<sup>4)</sup> 어떤 경우에는 '하'와 그 후속어미를 생략하고('하...' 생략) 쓰일 수 있다. 이러한 생략은 文末이나 대등접속절에서와, 특정한 종류의 종속접속절 등에서 일어나는데,<sup>5)</sup> 거기에는 각각 다른 제약이 걸린다 (졸저 1996: 191-2). 무엇보다도 문말과 대등접속절에서는 '하...'뿐만 아니라 게사 '이...'도 생략될 수 있으나 종속접속절에서는 '하...' 만이 생략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3) 최근의 추세는 'X+하다'를 한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서정수(1975), 김영희(1986), 고재철(1988), Hee-Don Ahn(1991), Kabyong Park(1992), 정원수(1992), 시정곤(1994), 채희락(1996) 등 많은 연구들은, 명사편입(noun incorporation), 輕動詞 분석, 핵이동 등 상이한 설명법에 의지하면서도, "철수가 국어를 공부한다."의 '공부하다'가 통사부에서 '공부'와 '하다'의 두 별개 단어로 출발하여 유도되는 것으로 보는 데에서 똑 같다.

4) 본고에서는 'X'와 '하다'로 된 어떤 구성이 하나의 단어로 상정되고 있을 때는 'X하다'로, 구로 상정되고 있을 때는 'X 하다'로 나타내며, 아직 하나의 단어(복합어)인지, 구인지 판정되지 않았을 때는 'X+하다'로 나타내기로 한다.

5) 이현우(1990)에서 종속접속문 서술어에서의 '하...' 생략을 포함해서 여러 종류의 '하...' 생략 예를 신문 기사의 제목이나 본문에서 찾아 소개한 바 있다.

본고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특정한 종류의 종속접속절에서 그 서술어가 '하...' 없이 어기인 'X'만으로 성립하는 현상이다[(1나)]. 이 생략은 완전히 규범적이라고 인정되지는 않아도 현실적으로 신문 기사의 본문이나 일부 실용문 등에 흔하게 나타난다.<sup>6)</sup>

(1) 가. 홍 선수, 어제 김 감독과 함께 구단주를 방문.

나. 홍 선수는 어제 김 감독과 함께 구단주를 방문, 취재 기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서정수(1975:20-22)에서는 (1가)과 같은 문말에 나타나는 '하...' 생략을 다루면서 '방문'만으로 서술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의 유무에 관계없이 '방문' 자체의 의미특질만으로 서술 능력이 발휘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제 그 자체만으로 서술력이 발휘되는 어떤 어기를, 그 어기의 성격이 밝혀질 때까지, '하...'나 다른 어떤 요소가 생략되었다든가, 서정수(1975)에서처럼 원래부터 어떤 요소의 생략을 상정할 필요가 없다가 하는 전제가 없이, '어기 활용형'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2.1.2. 본고에서는 종속접속절에서의 어기 활용형이 '하-'와 그 후속어미의 생략형이며, 이때 생략되는 '하-'는 본동사 '하-'가 아니라 접미사 '-하-'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다음 예문들을 보자.

(2) 가. 철수는 그 책으로 재미있게 공부[하여],<sup>7)</sup> 처음으로 화석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나. \*철수는 그 책으로 재미있는 공부[(를) 하여], 처음으로 화석에 대해 알게 되었다.

6) 본고에서 이런 류의 문장을 규범적인 문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이 현상을 국어 문법구조를 들여다 보는 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다.

7) '[하여]'와 같이 표시한 것은 생략된 것을 보충한다면 대개 '하여'가 된다는 뜻이다. '하-'는 본고에서 생략된 요소로 주장하는 것이지만, 어미 '-어'는 여러가지 후보 중에서 가장 그럴 듯한 것으로 택한 것일 뿐이다. 자세한 것은 뒤의 2.2 참고.

- (3) ㄱ. 철수는 방학 동안 두문불출하며 두 달 간 독서[하여], 90년대 소설에 대해 ……  
 ㄴ. \*철수는 방학 동안 두문불출하며 두 달 간의 독서[(를) 하여], 90년대 소설에 대해 ……
- (4) ㄱ. \*철수는 그 동안 부친을 대신해 일곱 식구의 가장 노릇[(을) 하여], 동네에서 ……  
 ㄴ. \*철수는 대합실에 사람들이 모이면 이상한 짓[(을) 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끈 후 ……

(2ㄱ, 3ㄱ)의 ‘공부’와 ‘독서’는 접미사 ‘하-’의 어기이다. 그러나, (2ㄴ, 3ㄴ)의 ‘재미있는 공부’와 ‘두 달 간의 독서’는 명사구이므로 접미사의 어기일 수 없고, 따라서 본동사 ‘하-’의 목적어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접미사 ‘-하…’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본동사 ‘하…’는 생략이 불가능한 것을 볼 수 있다. ‘노릇’이나 ‘짓’은 본동사 ‘하-’의 보어(목적어)는 될 수 있지만(‘… 노릇을 하다’, ‘… 짓을 하다’), 접미사 ‘-하-’의 보어(어기)는 될 수 없다는(\*노릇하다, \*짓하다) 제약을 가지는 특이한 동작성 명사들이다. 본동사 ‘하…’는 생략될 수 없다고 하여야 (4ㄱ, ㄴ)이 비문이 된 것이 설명된다. 이렇게 (2)-(4)의 예들은 접미사 ‘-하…’만이 생략될 수 있고 본동사 ‘하…’는 생략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1.3. ‘-하…’ 생략형을 가지는 ‘하다’ 동사의 어기는 위에서 본 동작성의 명사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상태성의 명사일 수도 있고, 부사(혹은 어근)일 수도 있다. 나아가 독립된 단어로 쓰이지 못하는 어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지, 생략되는 것이 접미사 ‘-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5) ㄱ. a. 철수는 어릴 때부터 늘 건장[하여], 부모가 걱정을 할 일이 없었다.  
 b. 새 제품은 이전 제품들보다 안전[하여], 소비자들에게 ……  
 ㄴ. a. \*나라가 오랫동안 평화, 백성들이 온순하기만 하다.  
 b. \*이 제품은 품질이 중급, 가격이 웬만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
- (6) ㄱ. a.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여러 선생님들께서 ……  
 b. 이번에는 신청자들을 평점 3.8에서 컷트[하여], 절반 이상이 선발되었다고 한다.

- ㄴ. a. \*협상을 할 때는 상대의 표정을 살피며 讀心, 그때그때 상대가 이 쪽의 제안을 ……
- b. \*홍 선수는 환호하는 관중들에게 스마일, 관중들의 격려에 여유있게 답하면서 ……
- (7) ㄱ. a. 아이들마다 옷차림이 깎깎[하여], 방문객들의 마음을 ……
- b. 이 지역은 우리 나라에서도 기후가 가장 온난[하여],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
- ㄴ. \*큰 회사 치고는 장부 정리가 너무 엉망,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 (8) ㄱ. a. 철수는 누나를 보자 저절로 입이 뻥긋[하여], 합격한 것을 숨길 수가 없었다.
- b. 나뭇잎마다 이미 파릇파릇[하여], 봄이 한가운데 왔음을 알리고 있다.
- ㄴ. a. \*철수는 누나를 보자 저절로 입이 뻥긋, 대학에 합격한 것을 숨길 수가 없었다.
- b. \*두루미는 하늘로 훨훨, 드디어 철수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5)의 '건강', '안전'과 '평화', '중급'은 똑 같이 상태성 명사이지만, '하다' 형용사를 가지는 앞 두 단어만 여기 활용이 가능하다. (6)의 '비릇'은 중세국어에서는 어간으로도 쓰였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어근의 자격만을 가지는 것이며, '커트'는 특이하게 명사가 아닌 어근 자격으로 들어온 외래어 동사이다.<sup>8)</sup> 이들은 '하다'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독심'과 '스마일'은 '하다' 동사가 없어서 역시 여기 활용도 불가능하다. (7)의 '깎끔', '온난'과 '엉망'은 똑같이 상태성 어근이지만, 역시 '하다' 형용사가 있는 앞의 두 단어만 여기 활용이 가능하다. '엉망'은 의미상 상태성 어근이지만 '하다'가 아닌 '이다'와 결합하여 단어가 되기 때문에 여기 활용형이 불가능한 것이다. (8)의 '뻥긋'과 '파릇파릇'은 스스로 부사이기도 하고, '하다' 동사(형용사)를 만들기도 하는데 '뻥글'은 부사도 아니고 '뻥글하다'도 만들지 못하며, '훨훨'은 동사 수식의 의태 부사이지만 '\*훨훨하다'를 만들지는 못한다(3.2.3. 참고). (8)의 예문도 역시 '하다' 동사(형용

8) 일반적으로 외국어의 동사는 '명사+하다'로 들어오고, 형용사는 '어근+하다'로 들어온다. 그러나 (6)의 '커트'는 원래 동사이면서도 특이하게 '어근+하다'로 들어왔다(탁구, 이발의 어떤 방법을 가리키는 의미로는 '명사+하다'로 들어왔음). 또 다른 예로 '어떤 기록을 내다'라는 뜻의 '마크하다'가 있다. 또, 중국 문어의 동사, 형용사로부터의 차용에 대해서는 최윤갑(1983) 참고.

사)가 존재해야 여기 활용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하다' 동사이면서 '-하...' 생략이 불가능한 예들도 있다.

- (9) 철수는 질문들에 너무 빠르게 {\*답, 대답}, 진행자가 당황하면서 ……  
 (10) 사원 여러분들의 요구에 {\*응, 부응}, 경영진에서는 ……  
 (11) 이월인데도 날씨가 {\*폭, 푸근}, 성미 급한 부모들은 ……

(9)~(11)에서는 '하다' 동사일지라도 여기가 한 음절 짜리이면 '-하...' 생략이 적용될 수 없음을 볼 수 있다.<sup>9)</sup> 여기가 원래 단어였는가 어근이었던가, 어기의 의미가 동작성인가 상태성인가, 여기가 한자어인가 고유어인가는 모두 관계가 없다. 졸고(1981: 51-3, 1996: 192-4)에서는 '하다' 동사(/형용사)와 '-어' 형 합성동사의 어기분리도 선행 어기가 일음절로 된 것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가진다고 한 바 있는데, 동일한 제약이 '-하...' 생략에도 걸리고 있는 것이다.

2.1.4. 지금까지 동작성의 명사('공부, 독서, 준비, 입력')와 어근('비롯, 커트, 병긋'), 상태성의 명사('건강, 안전')와 어근('갈끔, 온난, 파릇파릇')이 '-하-'의 어기가 되며, 이들은 '-하...' 생략형을 가짐을 보았다. 일음절 어기들('답, 응, 폭')도 본질적으로 이들과 같다. 이들과 달리 '공부를 하다', '독서를 하다' 등 목적어와 본동사 '하다'로 된 구성은 '하...' 생략형이 불가능하다. '하...' 생략의 가능성에서 보이는 이들의 차이는 이들의 문법적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공부+하다'에는 '공부(를) 하다'의 조사와 휴지 생략형도 있겠지만, '비롯하다, 갈끔하다, 응하다, 폭하다'와 같은 구조로 된, 어휘부에서부터 한 동사인 '공부하다'도 있다고 하여야 한다.<sup>10)</sup>

9) 단, 의성어를 어기로 한 "탁"하다와 같은 것들은 어기가 일음절 짜리일 때도 '하...' 생략이 가능한 듯하다. "막대기가 '탁'(하고) 부러지면서 ……" 그러나 이 때에 어근은 이음절 이상의 발음시간을 차지하는 듯하다.

10) Aronoff의 단어어기 가설은 단어형성 규칙은 구가 아닌 단일한 단어(single word)만을 어기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전상범 역 1987: 52). 이에 따르면, 중세국어의 '스랑흙-', 感動흙-, 怒흙-, 愛樂흙-, 恭敬흙-, …'과 같은 예들은(형용사화의 '-하-'이 '하다' 동사를 어기로 하여 형용사를 만들었음. 안병희 1978: 66-7, 이기문 1972: 151, 고영근 1987: 157 참고) '하다' 동사들이 어휘부에 실재한 단어라는 좋은 증거가 되어 준다. 이 외에 중세국어의 'x+하다'들이 몇 가지 다른 교체 유형을 보여준다는 사실도 'x+하다'

줄고(1991, 1996: 160-6)에서는 ‘하다’ 형용사의 표현적 장음화가 어근 말음절에 걸리는 까닭은 일차적으로는 어근(‘X’)이<sup>11)</sup> 그 형용사의 모든 어휘적 의미를 담고 있고 ‘하다’는 의미상으로 비어 있어서, 어근의 말음절에 가해지는 어떤 표현적 조작이 그 단어 전체의 의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어근과 ‘하-’ 사이로 규정되는 경계의 성격이 그 경계에서 그러한 조작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기 때문이라고 한 바 있다. 이제 본고에서는 ‘-하...’ 생략 역시 일차적으로는 ‘X’가 ‘X하다’의 어휘적 의미를 모두 담고 있고 ‘하-’는 의미적으로 비어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으며, 어기와 ‘하-’ 사이라는 경계의 어떤 성격이 이러한 과감한 생략을 허용한다고 이해한다.

## 2.2. ‘-하...’ 생략형의 형태 기술

어기만으로 된 서술어가 ‘X하...’의 ‘-하...’의 생략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형태소 ‘하’가 생략된 자리에 ‘하’의 영이형태(零異形態)가 있다고 말한 셈이다. 한편 어미 부분에 대해서는 국어의 일반적인 절 구성법에 맞추기 위해 거기에 어떤 무형의 어말어미(접속어미)가 존재한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처리함으로써 이러한 문장형도 국어의 정상적인 문장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무형의 어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앞에서 ‘-하...’ 생략형의 예문들을 보일 때 괄호 속에 ‘하여’를 보충해 보이곤 하였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고’나 ‘하며’가 더 알맞을 때도 있고, 또 적절한 어미를 찾기가 불가능해 보일 때도 있다.

(12) 작은 별이 반짝반짝[하여/하고/하며], 다른 별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13) 별들이 마치 속삭이는 듯[하??] 빛나고 있었다.

(12)의 ‘반짝반짝’은 선행절의 동사 서술어이며, 그 어간은 ‘반짝반짝+~~하~~’이다(‘~~하~~’는 ‘하-’의 이형태). 그런데 이 어간 뒤에는 어미 ‘-아’ 뿐 아니라 ‘-고’나 ‘-

의 내부 구조가 일률적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해 준다(이현희 1986).

11) 표현적 장음화가 걸리는 어기의 형태론적 성격은 어근이다.

며'를 상정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필자의 감각으로는 '-고'가 가장 나운데, 이것은 앞 절의 많은 예에서 '-아'가 상정되었던 것과 다르다. 본고에서는 (13)의 '뚫'도 '-하...' 생략형으로 이해하는데,<sup>12)</sup> 이 경우에는 어떤 어미를 상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지만 '뚫'을 '뚫+하+이'로 분석하기로 한다.<sup>13)</sup> 그러므로 '...'의 빈칸에 경우에 따라 '-아'나 '-고'나 '-이'를 유력한 후보로 상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정확히 지적할 수 없는 여러 개의 형태소들을 상정하는 쪽보다는 그 빈칸에 하나의 영형태소를 설정하는 쪽을 택한다.<sup>14)</sup> 말하자면 '하'가 생략된 '공부'(정확히는 '공부- $\emptyset$ -')는 동사 어간 '공부하-'의 '똥語幹'이 되는 셈이고, '-하...'가 생략된 '공부'(정확히는 '공부- $\emptyset$ - $\emptyset$ ')는 '공부하-'의 어느 활용형의 똥活用形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자적인 활용형이 되는 셈이다.

### 2.3. 다른 복합적 동사의 어기활용

그러면 이러한 어기 활용형을 'X하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X+되다', 'X+시키다' 같은 복합적인 동사(혹은 동사구)나 'X롭다', 'X스럽다' 같은 파생형용사도 가질 수 있는지 알아 보기로 하자.

- (14) 가. \*국회 개원 전까지 보고서가 준비[되어], 미리 각 당 의원들에게 ……  
 나. \*실무자에게 보고서를 준비[시켜], 미리 각 당 의원들에게 ……  
 다. 차관급에서 직접 보고서를 준비[하여], 미리 각 당 의원들에게 ……  
 (15) 가. \*전산실장의 지시에 따라 자료들이 입력[되어], 일 주만에 ……

- 12) 이 경우는 '하-'의 어기가 문장적인 단위라는 데 여태까지 본 예들과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3.1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13) '깨끗이', '반듯이'도 '깨끗-하-이', '반듯이-하-이'로 분석할 것을 제안하는 셈이다. 필자는 이 '-이'는 활용어미와 파생어미의 두 신분을 다 가진다고 보는데(줄고 1996 참고), (13)에서는 활용어미로 본다.  
 14) 현대국어의 '하다' 동사들의 어기활용형은 국어사의 이전 단계에서의 '하다' 동사들이 가지던 동사 어간만으로 된 활용형(즉 무어미 활용형)이 이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다. 중세국어 '비웃다'의 무어미 활용형은 중세국어 '비웃ㅎ다'의 어기 활용형과 같게 된다.(현대국어에서 어기 활용형 가운데 '비웃'은 다른 어기 활용형들보다 더 자연스럽다.) 용비어천가의 "하늘머리 눈썹 디니이다"의 '눈썹'도 '하...' 생략형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모른다. 중세국어 동사 어간의 유리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기문(1972: 144-5) 참고.



- ㄴ. \*전산실장은 그 자료를 학생들에게 입력[시키], 일 주만에 ……
- ㄷ. 전산실장은 그 자료를 학생들을 시켜 입력[하여], 일 주만에 ……
- (16) \*관계 당국의 협조로 업무 진행이 순조[로워], 기대했던 대로 ……
- (17) \*철수의 출현이 갑작[스러워],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다.

동작성 어기 ‘준비’와 ‘입력’은 ‘X하다, X되다, X시키다’의 세 동사형에 모두 어기로 사용된다. (14), (15)는 ‘준비’나 ‘입력’처럼 동작성 어기의 복합어일지라도 ‘X되다’, ‘X시키다’의 ‘되…’나 ‘시키…’는 생략될 수 없고 오직 ‘X하다’의 ‘-하…’만이 생략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16), (17)에서는 ‘X롭다’, ‘X스럽다’ 형의 파생형용사에서 ‘-롭…’, ‘-스럽…’이 생략이 불가능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접미사 ‘-하’만이 이러한 생략을 겪을 수 있다는 데에 전혀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다’ 동사를 가지지 않는 몇 개 어기들도 여기만으로 활용형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 (18) ㄱ. ??이 업종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특히 성업, 아파트 거주 주민들의 ……
- ㄴ. ?그 부분은 이미 수 차례 고장, 지하철 공사의 ……
- ㄷ. 폭설로 인해 영동 지방의 교통이 마비, 경찰이 ……
- (19) ㄱ. \*철수는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가방을 내동댕이, 늘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았다.
- ㄴ. 우승이 확정되자 선수들은 김 코치를 헝가래, 김 코치에 대한 ……
- ㄷ. 철수는 유리창을 깨 놓고는 그대로 뺏소니, 가게 주인이 ……

(18)의 동작성 어근 ‘盛業’과 동작성 명사 ‘고장’은 ‘하다’ 동사가 없는데도 어기 활용형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듯하다. ‘마비’는 ‘마비되다’, ‘마비시키다’로는 쓰여도 \*‘마비하다’로는 쓰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sup>15)</sup> 어기 활용형이 가능하다. (19)의 ‘내동댕이’에 대해서는 \*‘내동댕이하다’가 불가능하고, ‘내동댕이치다’만이 가능하므로 어기 활용이 불가능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헝가래’,

15) 심재기(1989)에서 ‘마비하다’라는 동사는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癱瘓하다’는 《국어대사전》(이희승 편, 1982, 민중서림)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금성판 국어대사전》(김민수 외 편, 1991, 금성출판사)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뽕소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헹가래치다’, ‘뽕소니치다’로 쓰이고 ‘?헹가래하다’, ‘?뽕소니하다’는 부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여기 활용이 가능한 듯하다. ‘성업하다’, ‘고장하다’, ‘마비하다’, ‘헹가래하다’, ‘뽕소니하다’와 같은 동사를 인정하고 이 동사들은 여기 활용형으로만 쓰인다고 이해하는 방법이 있으나,<sup>16)</sup> 일단 이들을 ‘X하다’만이 여기 활용형을 가진다는 본고의 가정에 예외로 남기기로 한다. 그러나 ‘X하다’는 ‘-하…’ 생략이 되어도 ‘X를 하다’는 ‘하…’ 생략이 안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따라서 ‘X하다’는 어휘부의 동사라는 주장도 여전히 유효하다.

### 3. ‘X하다’의 형태론

#### 3.1. 본동사 ‘하-’ 그리고 접미사 ‘-하-’와 그 어기

3.1.1. 접미사 ‘-하-’는 어휘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본동사 ‘하-’는 자신의 어떤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략될 수 없다고 말하는 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한다’와 같은 예의 ‘한다’에서 ‘열심히’라는 양태부사의 수식을 받을 [동작성]이라는 의미만큼은 부정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본동사 ‘하-’가 참여한 ‘X하다’ 형 동사는 없는가. 만일 있다면 그들은 유의미한 ‘하-’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 생략을 겪을 수 없을 것이다.

다음 (20)-(22)의 ‘X+하다’들은 ‘X’가 일음절 짜리가 아닌데도 한결같이 ‘하…’ 생략형이 성립하지 못한다.

(20) \*철수는 동생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나무[하여]. 해가 기울었을 때는 벌써 …

…

(21) \*순희는 작년부터 명동의 그 집에서만 머리[하여], 누구보다도 …….

16) ‘하다’ 동사에는 ‘자칫하면, 걸핏하면, 可憐할’ 등 유일 활용형을 가지는 것들이 많다.

(22) \*철수는 그와 정치적인 이념을 같이[하여], 그와 함께 …….

(23) \*사장은 정기적으로 노조 대표들과 자리를 함께[하여], 노사 협조 분위기를 …….

(20), (21)의 ‘X하다’는 각각 ‘나무를 (많이) 하다’, ‘머리를 (예쁘게) 하다’나 ‘(일을) 같이 하다, (일을) 함께 하다’ 등과 같은 구에서 출발하여 어휘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의 ‘X하-’들은 통사적 합성어가 된다. 그리고 이들의 ‘하-’는 다른 동사들이 통사적 합성어(예: ‘빛내다, 뺨치다, 색다르다’)를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로 ‘X하-’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의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20)-(22)의 ‘X하다’들은 어휘적 의미를 가진 본동사 ‘하-’가 선행성분과 어떤 통사적 관계를 가진 채 어휘화한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앞장에서 본 ‘X하다’와는 그 내부 구조가 다르다고 본다.

3.1.2. 이제 다시 접미사 ‘-하-’에 초점을 맞추어 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심재기(1982: 354-364)에서는 본고의 접미사 ‘-하-’의 기능을 ‘서술기능완결’이라고 하였는데, 그 뜻은 접미사 ‘-하-’를 가지는 ‘운동하다’와 같은 동사에서 ‘-하-’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서술 기능에 ‘운동’으로부터 복사투영해 온 의미를 실어 서술을 완결한다는 것이다. 임흥빈(1989: 180)에서는 ‘-하-’가 선행 요소의 의미론적 특성에 따라 통사적 성질을 가지기도 하고 형용사적 성질을 가지기도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실질적 어휘는 이러한 특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데에 근거하여 이 ‘-하-’를 접미사라고 규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인식들을 바탕으로 하여 접미사 ‘-하-’의 특성을 부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동사적 성질’, ‘형용사적 성질’을 통사적 자질과 의미적 자질의 둘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본동사적인 ‘하-’는 스스로 통사 자질 [+V]와 의미자질 [+동작성]을 가지고 있지만, 접미사 ‘-하-’는 스스로는 [+V]의 통사적 자질을 가지고 있고 [±동작성]의 의미자질은 어기의 것을 복사하여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sup>17)</sup>

17) 동작동사와 상태동사는 [동작성]의 有無에 따라 유무대립적 성격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때 상태동사가 무표항이다.

(i) —또, 순회는 잠만 들면 코를 골아.

그런데 존경법의 '-시-'도 어떤 자질은 선행 어기의 것을 그대로 복사해 오는 성질이 있다. 아래 (24)에서 '-시-'의 이러한 행동을 봄으로써 접미사 '-하-'와 비교해 보기로 하자.

(24) 가. [가]-ㄴ-다	[크]-다	[사람-이]-라(-고)
나. [가 시]-ㄴ-다	[크-시]-다	[사람-이-시]-라(-고)
다. [가-더]-라	[크-더]-라	[사람-이-더]-라(-고)
르. [가-었]-다	[크-었]-다	[사람-아-었]-다(-고)
미. [가-았-더]-라	[크-었-더]-라	[사람-아-었-더]-라(-고)

위에서 '-ㄴ다, -다, -라'와 같은 종결어미를 선택하는 면에서 '-시-'는 '-더-'나 '-었-'과는 다른 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더-'와 '-았-'은 스스로 고유한 범주 결정 자질을 가지는데 비해 '-시-'는 원 어간의 자질을 그대로 복사해 지님으로써 '-시-' 결합형이 어간과 똑 같은 범주에 속하게 하는 것이다. 바꾸어 표현하면 '-시-'는 선행 어간의 동사성, 형용사성, 계사성을 그대로 비추어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다.<sup>18)</sup> 이것은 접미사 '-하-'가 선행 어기의 [±동작성]을 복사하여 자신의 범주 결정 자질로 삼는 것과 똑 같다. 우리는 '-하-'가 '-시-'와 함께 일면 굴절 접미사적 행동방식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의 이러한 굴절어미적 행동방식은 '-하-'의 비어휘적 성격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 주는 것이다.

3.1.3. 접미사 '-하-'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은 그것이 단어보다 큰 어기를 취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는 다시 '-하...' 생략 현상을 관찰 수단으로 하여 '-하-'가 취하는 어기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보기로 한다.

—나도 그러는데 뭐('그러다'는 동사). / 나도 그런데 뭐('그렇다'는 형용사).

(i) —순회는 성격도 좋고 노래도 잘 불러.

—\*순회는 정말 그런다더라. / 순회는 정말 그렇다더라.

18) 이것은 접사가 복수의 형태소로 된 어기에 결합할 때 어기의 어느 형태소를 (또는 어느 형태소의 자질을)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인접조건'이나 '원자조건'을 부과하는 설명법이 있다. 전상범 역(1987: 220 이하) 참고.

- (25) ㄱ. 철수는 열심히 공부(하<sup>여</sup>/0), 제때에 대학에 입학하였다.  
 ㄴ. 철수는 신체가 건강(하<sup>여</sup>/0), 웬만큼 힘든 일도 ……
- (26) ㄱ. 그 병은 과로에서 기인(起因)(하<sup>여</sup>/0), 발전하면 작은 일에도 ……  
 ㄴ. 이 기계는 사용법이 간단(하<sup>여</sup>/0), 아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 (27) 곧 비가 올 듯(하-이/0), 하늘이 검어졌다.
- (28) 철수는 책을 읽는 책(하<sup>고</sup>/0), 부지런히 책장을 넘겼다.
- (29) ㄱ.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sup>여</sup>도/0), 내일은 출발한다.  
 ㄴ. 꽃이 붉거나 희거나 (하<sup>여</sup>도/0), 다 똑 같이 예쁘다.
- (30) 옷을 입으나 마나 (하<sup>여</sup>/0), 춤기는 마찬가지다.
- (31) 철수는 학교에 갈까 말까 (하<sup>고</sup>/0), 망설였다.
- (32) ㄱ. 철수가 “하하하” (하<sup>고</sup>/0) 웃었다.  
 ㄴ. “꽃이 참 예쁘다.” (하<sup>고</sup>/0) 철수가 말했다.

(25)의 '공부'와 '건강'은 명사이지만 여기에 주어진 구조 안에서는 문장의 어떤 성분이 되지 못한다.<sup>19)</sup> 그러나 (26)의 '기인'과 '간단'은 본래 어근이기 때문에 '-하-'와의 연결은 정의에 따라 비통사적일 수밖에 없다.

(27), (28)의 '듯', '책'은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內向的으로 명사이지만, 자신이 표제로 있는 구성을 주어, 목적어 등으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外向的으로는 본래부터의 어근이다. 문장을 내포하는 어근인 것이다. 어미 '-거나'도 접속구성의 내부를 향한 기능을 가질 뿐 외부를 향한 기능을 가지지 않으므로 (29ㄱ,ㄴ)의 밑줄친 부분은 비통사적 단위 즉 어근이 되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30)의 '하다'는 여기서 동사문임에도 불구하고 형용사 활용을 하고, (31), (32)의 '하다'는 여기서 동사문이든 형용사문이든 동사 활용만 하므로 '-하-'가 독자적으로 활용 부류(동사, 형용사)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들의 선행 형식들이 활용 부류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것은 이들의 선행형식들이 '-하-'에 대해 가지는 품사 범주적 의의가, '옷을 입으나 마나'는 동작이 아니라 동작의 결과인 '상태',<sup>20)</sup> '학교에 갈까 말까'는 가거나 가지 않

19) 이곳의 '공부'와 '하-'의 관계를 기저에서도 목적어와 타동사의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가 여기 '공부'를 동사화하고, 어기의 [동작] 의미가 '하-'에 복사되는 것은 '목적어+타동사' 구성에서 있는 일이다.

는 동작이 아니라 사고하는 '동작', "꽃이 예쁘구나."는 현실 상황이 아니라 발화하는 '동작'이기 때문이다. (30)의 '-오나'는 (29)의 '-거나'처럼 접속 구조의 외부에 대해서는 어떤 통사적 기능도 가지지 않으며, (31), (32)의 인용된 어기들은 하나의 의성어와 같은 자격을 가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sup>20)</sup> 따라서 (30)-(32)의 어기들도 어근 또는 어근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하...' 생략 현상을 중요한 근거로 하여, (25)-(32)의 '하-'를 모두 접미사 '-하-'로 본다. 그들의 어기 '공부', '건강'은 명사이고, '기인', '간단', '똥', '척'은 어근이며, 여러 가지 통사적 구성들은 어근화한 것이다. 그런데, '똥', '척'은 자신의 구 내부적으로는 명사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어근이다. 이렇듯 '똥', '척'의 존재 양상 자체가 명사의 어근화이므로 '공부', '건강'과 같은 일반적인 명사 어기들도 '똥', '척'처럼 명사가 어근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접미사 '-하-'의 어기는 모두 어근 혹은 어근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통사론적 구성을 어기로 하는 '파생'은 물론 전형적인 파생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 파생이 새로운 단어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전형적인 파생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단어나 어근과 같은 전형적인 파생 형태론의 단위를 어기로 하는 경우도 그 어기와 '하-'의 결합은 통사론적 구성의 어기와 '하-'의 결합 관계와 본질적으로 같다. 임흥빈(1989)에서는 위(27~29)의 '-하-' 구성을 포함하여 국어에서 어떤 문법적 요소가 통사론적 구성에 비통사론적으로 연결되는 과정들을 확인하고 이를 '통사적 파생'이라고 한 바 있다. 만일, 현재의 일반적인 국어 문법 기술 체계와 달리, 어근적 성격의 통사론적 구성과 '하-'의 결합을 통사론적 결합으로 인정하고 동사 '하다'뿐만 아니라 형용사 '하다'도 어휘부에 인정한다면, 단어나 본래 어근을 어기로 하는 '하다' 동사들은 합성어로

20) "그런 옷은 입으나 마나다"의 '입으나 마나'가 동작이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

21) 남기심(1973=1996:186)에서 다음의 밑줄친 부분들을, 의성어나 의태적 표현, 인용되는 말조각이나 문장을 어기로 하여 접미사 '하다'가 결합한 것으로(따라서 '하'까지가 어간이 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i) 총이 "번쩍번쩍"하고 빛난다.  
 (ii) 눈물이 "주룩주룩"하고 흘렀다.  
 (iii) 김씨가 "철수가 옳소!"하고 말했다.

처리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 체계를 택하지 않았으므로 '하-'를 접미사로 인정하고, 위 (27)~(32)의 '-하-' 구성을 통사적 파생으로 보기로 한다.

### 3.2. 새 'X'의 성립과 'X하다'의 재분석

3.2.1. '하다' 동사 연구는 접미사 '-하-'를 가지는 동사 'X하다'와 본동사 '하-'를 가지는 동사구 'X를 하다'의<sup>22)</sup> 대응에 대해서 언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새로운 서술명사 혹은 어근의 성립, 그리고 'X하다'의 재분석에 의한 새 동작명사의 분립을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살펴 보기로 한다.

[-서술성]의 명사와 본동사 '하-' 또는 접미사 '-하-'가 어떤 창조적 언어 사용의 맥락에서 어떤 상황적, 비유적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쓰일 경우가 있다. 이 때 그 새로운 의미는 명사 쪽에 부여될 수도 있고 동사 '하-' 쪽에 부여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서술성]은 다시 [±동작성]의 결정을 요구한다. 새 의미가 '-하-'와 통합되는 명사에 부여되면 일단 그 명사는 단어 자격을 잃고 어근화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새 의미로는 아직 다른 어느 문맥에서도 독립된 단어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

- (33) ㄱ. 영화는 온갖 솜씨를 부려 매운탕을 했다.  
 ㄴ. \*영화는 온갖 솜씨를 부려 매운탕, 식구들은 ……  
 ㄷ. \*식구들은 영화의 매운탕(‘영화가 매운탕을 하기’)을 바란다.
- (34) ㄱ. 이 예측은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根據했다.  
 ㄴ. 순희는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근거, 내년의 물가상승율을 예측했다.  
 ㄷ. ??통계에의 근거를 빈틈없이 하면 ……

예를 들어 (33ㄱ)에서는 새로운 의미인 '요리'가 '하-'에 부여되었다고 생각할

22) 이곳의 '공부(를) 하다'는 동사구이다. 그런데 하나의 단어인 '공부하다'가 주제화의 기능을 하는 '를'에 의해 분리된 결과도 '공부를 하다'가 되므로(임흥빈 1979) 주의하여야 한다. 필자의 직관으로는 전자는 '하다' 앞에 부사어의 사용이 자유로우나('공부를 열심히 한다', '공부를 주로 학교에서 한다'), 후자는 일부 특수조사와 접사적 부사('안')에 의해 분리될 수 있을 뿐이다('공부는/를/도/만/까지/들 한다', '공부 안 한다'). 줄지(1996: 192-4) 참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임시적으로 ‘요리하다’의 뜻을 가지게 되고 이 뜻이 고정된다면 이 ‘하-’는 모든 음식 지칭 명사들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설렁탕을 하다, 칼국수를 하다, 라면을 하다, 피자를 하다’ 등이 그것이다. 또 예를 들어 (34-1)에서는 새로운 의미인 ‘-를 돕’이 ‘근거’에 부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근거’는 임시적으로 ‘근거를 돕’(+동작성)의 뜻을 가지게 되고 이 뜻이 고정되면 유추 작용에 의해 많은 명사들에 유사한 의미 발달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추란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단어마다 제각각 겪을 수도 있고 겪지 않을 수도 있다. ‘土產하다, 基盤하다, 바탕하다, ?터전하다, ??中心하다, \*基地하다, \*本部하다, \*處所하다, \*宿所하다’ 등은 그러한 사실을 보여 준다.

본동사 ‘하-’를 가진 ‘매운탕(을) 하다’는 ‘하...’ 생략을 겪을 수 없고(33-), 여전히 실체성 명사인 ‘매운탕’을 동작명사 구문에 쓸 수 없을 것이다(33-). 그러나 접미사 ‘-하-’와의 공기 속에서 임시적으로 [+서술성], [+동작성]의 의미를 얻은 ‘근거’는 ‘근거하다’의 ‘-하...’ 생략을 겪을 수 있으나(34-), 동작명사 구문에 사용되는 길은 가능성만 열려 있을 뿐이다(34-). 왜냐하면 이 새로운 뜻으로의 ‘근거’는 독립된 명사로서의 용법을 아직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단어가 복합어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였을 때, 그 복합어를 떠나 독립해서 쓰일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sup>23)</sup> 실제로 의미변화의 결과로가 아니라 처음부터 [+동작성]을 가지는 많은 명사 비슷한 형식들(‘잠재어’와 ‘어근’들)이 독립된 동작명사로 쓰이지 못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예: \*맛이를 하다, \*由來를 하다, \*不通을 하다, \*內在를 하다, \*脫毛를 하다). 그러나 독립된 동작명사 용법이 없던 ‘하다’ 동사의 여기들도 ‘X하-’에서 ‘-하-’가 [+동작성]의 본동사로 재분석될 때 이에 상응하여 동작 명사로 분립하는 경우가 있다(예: ‘所願을 간절히 하다’의 ‘소원’. 줄고 1995 참고).

3.2.2. 드문 예이지만 언어의 창조적 사용에서 비서술성 명사가 [-동작성]을 부여받아 상태성의 어근이 되는 경우도 있다.

23) 줄고(1996: 20-1, 39)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단어형성 전용 요소’라 부른 바 있다. 예를 들어 ‘分泌腺’의 뜻인 ‘샘’은 ‘눈물샘, 땀샘, 목밀샘, 귀밀샘’ 등의 分泌腺 이름들에 간혀 있다.



- (35) ㄱ. 철수는 참으로 철면피(鐵面皮)하다.  
 ㄴ. \*철수는 참으로 철면피, 누가 자기에게 ……
- (36) ㄱ. 그 말은 좀 거식하다.  
 ㄴ. \*그 말은 좀 거식/거시기, 듣기 민망할지 몰라도 ……
- (37) 사람이 좀 뾰하다.

‘철면피’, ‘거시기’, ‘뾰’이 [+서술성], [-동작성]의 자질을 부여받아 접미사 ‘-하-’와 결합하여 형용사가 되었는데, ‘철면피’와 ‘거시기’는 이음절 이상이면서도 ‘-하-’ 생략이 불가능한 것은 [-서술성]의 원래의 용법이 강력하게 간섭하기 때문 일 것으로 추측된다. ‘뾰하다’는 어기가 일음절 짜리이므로 애초에 ‘-하-’ 생략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sup>24)</sup>

3.2.3. 부사적인 어근을 가진 ‘X하다’에서도 ‘X’가 부사로 재분석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38) ㄱ. 철수는 누나를 보자 저절로 입이 병긔(하여, 0), 합격한 것을 숨길 수가 없었다.  
 ㄴ. 철수는 누나를 보자 저절로 입이 병긔(하고, 0) 벌어졌다.
- (39) ㄱ. 나뭇잎마다 이미 파룻파룻(하여, 0), 봄이 한가운데 왔음을 알리고 있다.  
 ㄴ. 길가에 새싹이 파룻파룻(하게, 0) 돌아났다.
- (40) ㄱ. 난초 잎이 파룻(하여, 0), 볼수록 신선하였다.  
 ㄴ. 어느 틈에 난초 잎이 파룻(하게, ?0) 돌아났다.
- (41) ㄱ. 병글병글하다 : 병글병글  
 ㄴ. 병글거리다, 병글대다 : \*병글하다 : \*병글
- (42) 뿔뿔(뿔뿔 날다), \*뿔뿔하다

‘병긔’, ‘파룻파룻’, ‘파룻’, ‘병글병글’처럼 동일한 형식이 부사와 ‘하다’ 동사의 어기로 다 쓰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병글’과 같은 어근이나 ‘뿔뿔’과 같은 부

24) ‘철면피하다’는 예컨대 “저런 철면피한(鐵面皮漢) …”을 “저런 철면피-하-ㄴ …”으로 잘못 분석한 결과 생겨난 예외적 존재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라사병정(俄羅斯兵丁)하다’의 존재는 그렇게도 설명되지 않는다[아라사병정하다 : [그] (여벗) ‘노곤하다’의 변말.], 《우리말 큰사전》(한글학회).

사처럼 '하다' 동사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38)-(40)의 (ㄱ)에서는 밑줄 친 '병긋', '파룻파룻', '파룻'을 반드시 '-하...' 생략형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ㄴ)의 그것들은 '-하...' 생략형과 단순한 부사의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부사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42)의 '훨훨'은 [-서술성]의 부사로서 '하다' 동사와는 무관한 것이다.

(38)-(41)에서는 [+서술성]을 가진 동일한 형식이 '하다' 동사의 어기와 독립된 부사로 다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40)의 '파룻하다'는 그 자체로 성립이 좀 불안한 느낌이 있는데, 부사로는 더욱 불안한 듯하다.<sup>25)</sup> 이러한 사실로써 'X하다'와 동작명사 'X' 간에 볼 수 있었던 것과 유사한 관계가 'X하다'와 부사 'X' 간에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 이로써 많은 수의 부사들이 'X하다'의 재분석을 통하여 만들어졌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4. 마무리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X하다' 형의 파생어와 합성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었다. 'X하다'의 '-하...' 생략 현상 자체의 기술도 본고의 주요 과제였지만, 그 현상을 통해 '하다' 동사에 관해 제기되었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는 데 본고를 시작한 목적이 있었다.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여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종속접속절의 서술어로 쓰인 'X+하...'에서 접미사 '-하-'와 그 후속 어미가 생략될 수 있다. 본동사 '하...'는 생략될 수 없다. 이들의 행위가 다른 것은 'X하다'는 어휘부에서 한 단어이고 'X(를) 하다'는 통사부에서 형성된 구이기 때문이다. '-하...' 생략은 접미사 '-하-'가 어휘적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25) 《국어대사전》(이희승 편지)과 《금성판 국어대사전》(김민수 외 편)에 '파룻하다'는 있으나 '푸룻하다'는 없다. 이 사실로도 '파룻하다'는 수록되기는 하였으나 확고한 것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2. 'X하...'의 '-하...' 생략형은 '-하-'가 영이형태로 실현되고 어말어미는 영 형태소인,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자적인 활용형이라고 처리한다.

3. 어휘적 의미를 가진 본동사 '하-'가 선행성분과 어떤 통사적 관계를 가진 채 어휘화하여 된 통사적 합성어들이 있다(예: '나무하다', '같이하다'). 이들은 '하...' 생략이 불가능하다.

4. 존경법의 '-시-'가 앞 어간의 동작성과 형용사성을 복사하여 자신의 자질로 하는 것처럼, 접미사 '-하-'는 어기의 동작성과 형용사성을 복사하여 자신의 자질로 한다. '-하-'의 이러한 굴절접미사적 행동방식은 '-하-'의 비어휘적 성격을 잘 보여 주는 것이다.

5. 접미사 '-하-'는 명사, 본래부터의 어근, 다양한 통사적 구성들이 어근화한 것 등 여러 가지 형식을 어기로 한다. '듯'과 '척'은 자신의 구 내부적으로는 명사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어근이다. '듯'과 '척'의 이러한 존재 양상은 곧 명사의 어근화이므로, '-하-'의 일반적인 명사 어기들도 명사로부터 어근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비서술성의 명사와 본동사 '하-' 또는 접미사 '-하-'가 창조적 언어 사용의 맥락에서 어떤 상황적, 비유적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쓰일 때, 새 의미가 동사 '하-' 쪽에 부여될 수도 있고 명사 'X' 쪽에 부여될 수도 있다. 구 '매운탕을 하다'는 전자의 예이고 파생어 '근거하다'는 후자의 예이다. 독립된 동작명사 용법이 없던 '하다' 동사의 어기들도 'X하-'에서 '-하-'가 [+동작성]의 본동사로 재분석될 때 동작명사로 분립하는 경우가 있다(예: '所願을 간절히 하다'의 '소원'). 비서술성 명사가 [+서술성], [-동작성]을 부여받아 상태성의 어근이 되는 경우도 있다(예: '鐵面皮하다'). 어근을 가진 'X하다'에서 'X'가 부사로 재분석되는 경우도 있다(예: '병긋하다'의 '병긋', '파릇파릇하다'의 '파릇파릇').

본고에서는 '-하...' 생략의 통사·의미론적 제약을 거의 말하지 못하였다. 또 종속접속절에서의 '-하...' 생략 외에 다른 문맥에서의 유사한 생략들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못하였다. 또 '서술성 명사'의 정의와 한정, 그리고 새 서술성 명사의 형성 과정도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이러한 방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고영근(1987),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 고재설(1988), 《국어의 합성동사에 대한 연구》, 서강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1986), <복합 명사구, 복합 동사구 그리고 겹목적어>, 《한글》 193.
- 김창섭(1981), <현대국어의 복합동사 연구>, 《국어연구》 47.
- 김창섭(1991), <‘하다’ 형용사에서의 표현적 장음>,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김완진 선생 회갑 기념 논총)》, 민음사.
- 김창섭(1995), <국어 파생접사와 파생어의 사전적 기술>, 《애산학보》 16.
-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태학사.
- 김창섭(1996), <국어 파생어의 통사론적 문제들>, 《이기문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총》, 신구문화사.
- 남기심(1996), 《국어 문법의 탐구》 I, 태학사.
- 서정수(1975),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 시정근(1994), <‘X를 하다’와 ‘X하다’의 상관성>, 《국어학》 24.
- 심재기(1982), 《국어 어휘론》, 집문당.
- 심재기(1989), <좋은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한 예비적 고찰>, 《애산학보》 7.
- 안병희(1978), <15세기 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국어학 연구 선서 2), 탑출판사, 《국어연구》 7(1959).
- 이기문(1972), 《국어사 개설 (개정판)》, 탑출판사.
- 이남순(1993), <‘하-’의 범주 중립적 특성에 대하여>,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안병희 선생 회갑기념논총), 문학과지성사.
- 이익섭(1968), <한자어 조어법의 유형>, 《이승녕 박사 송수 기념논총》.
- 이익섭(1975), <국어 조어론의 몇 문제>, 《동양학》 5, 단국대학교.[이병근 외 편 (1993), 《형태》(국어학 강좌 3), 태학사]
- 이현우(1990), <국어 어휘 사용의 몇 모습>, 《국어생활》 22, 국어연구소.
- 이현희(1986), <중세국어의 용언 어간말 ‘-ㅎ-’의 성격에 대하여>, 《국어학신연구》, 탑출판사.
- 임홍빈(1979), <용언의 어근분리 형상에 대하여>, 《언어》 4-2, 한국언어학회.
- 임홍빈(1989), <통사적 파생에 대하여>, 《어학연구》 25-1, 서울대 어학연구소.(이

- 병근 외 편(1993), 《형태》(국어학 강좌 3), 태학사)
- 전상범 역 (1987), 《생성형태론》, 한신문화사. [S. Scalise(1984), *Generative Morphology*, dordrecht: Foris]
- 정원수(1992), 《국어의 단어형성론》, 한신문화사.
- 채회락(1996), <“하-”의 특성과 경술어 구문>, 《어학연구》 32-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최윤갑(1983), <조선어의 한자어와 동명사(형명사)>, 일본 Korea학 연구회 편, 《제 1차 KOREA학 국제교류 세미나 논문집》, 흑룡강 조선민족출판사.
- 홍재성 외(1997),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두산동아.
- Ahn, Hee-Don(1991), *Light Verbs, VP-movement, Negation and Clausal Architecture in Korean and English*, Ph. D. dissertation, Univ. of Wisconsin-Madison.
- Park, Kabyong(1992), *Light Verb Constructions in Korean and Japanese*, Ph. D. dissertation,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